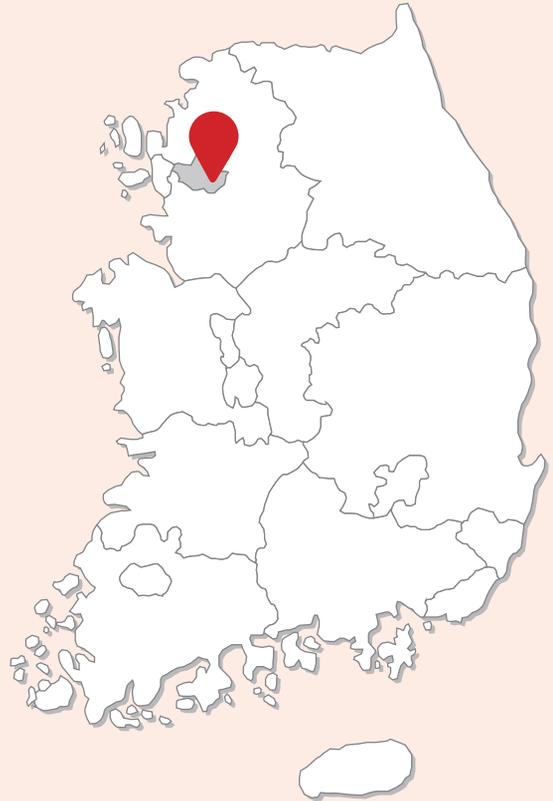


“의대 증원·무학과 선발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다뤄주세요”

거주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녀	N수생, 고2
구독 기간	1년 2개월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되셨나요?

〈내일교육〉에서 주관한 설명회에 참석한 후 구독을 신청했어요. 작년에 첫째가 고3, 둘째가 고1이었는데 대입 정보나 이슈 등을 〈내일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활동이나 학생부 기록을 담은 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최근 자녀 교육과 관련해 고민이 있나요?

〈내일교육〉은 교육 잡지 중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일교육〉에서 소개한 책을 탐구 주제나 수행평가 때 활용해도 좋을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일교육〉에서 소개한 내용을 활용한다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수행평거나 세특 관련해 책을 고를 때 너무 알려진 책은 신선하지 않고, 그렇다고 알려지지 않은 책을 고르자니 검증이 안 된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둘째는 자연 계열 진학을 준비 중이에요. 여학생이다 보니 물리학과 컴퓨터에

관심이 없어 생명이나 화학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데 학과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학 계열에 비해 경쟁률이 높고 취업도 쉽지 않으니깐요.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의대 증원으로 최상위권 자연 계열이 이동하면 교차지원을 비롯해 대입 전체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 줄 파장도 함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입시부터 무학과 선발을 하는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추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

Reporter's A/S

의대 증원으로 공대 등 자연 계열에 연쇄적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파장, 대입 환경 변화와 지원 전략을 다룬 '의대 2천 명 증원, 최상위권 블랙홀 될까'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또한, 2025학년 입시부터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무전공' 선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한 영향과 대비법을 다룬 '무전공 선발 확대 대입 파장은?'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지 1124호 WEEKLY THEME_ 대학 전공 '벽 허물기' 본격화, 무전공 선발 확대 대입 파장은? 기사 참조



본지 1127호 WEEKLY THEME_ 의대 2천 명 증원, 최상위권 블랙홀 될까?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2024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12_ 서울시립대 화장품공학과 황시현 화장품 연구원에서 환경 기술 개발자로 꿈 찾아준 '체인지 메이커'

"둘째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니 수시 합격생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고교 생활이나 세특, 수행평가 준비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좋습니다. 매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고요."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書- 생명과학 ④ <생명과학 I> 면역

"수행평가나 세특 준비를 할 때 과목과 단원 중심으로 책을 추천해주 도움이 돼요. 다만, 다른 독자들도 <내일교육>에 소개된 책을 활용할 텐데, 신선함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